



[산업] 이재용 삼성회장 첫 출장지 아랍에미리트 08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19.32 (-15.01)	코스닥	733.32 (+0.37)
금리 (미국 3년)	3.609 (-0.007)	환율 (원-달러)	1292.60 (-7.30) (5일)

# ‘위기극복’ 위해 재무통 전진배치 불확실성 시대 안정속 미래설계

## 주요 기업 ‘2023 인사 키워드’

삼성, 한중희·경계현 체제 유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회장 4연임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유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세계 연말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번 연말 인사의 키워드는 ‘재무’와 ‘유임’이다. 재무통을 주축으로 발전을 꾀하면서도 핵심 경영진 유임으로 조직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안정 기반의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세계 전반에 퍼진 상태다. 그 와중에 오너가 3·4세의 등장도 눈에 띈다.

5일 기준으로 삼성·SK·현대·LG 등이 연말 인사를 마쳤다. 지난해 인사에서 3개 사업 부문의 60대 대표이사를 모두 바꾸며 사업 부문 통합까지 단행

한 삼성의 경우, 한중희 대표이사 부회장(DX부문장)과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DS부문장) 등 기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선 1일 인사를 단행한 SK그룹도 예년보다 소폭의 인사를 발표하며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회장 조대식 의장의 4연임 소식을 알렸고, 장동현 SK㈜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도 유임하는 행보를 보였다.

LG그룹도 임기 만료 전 용퇴를 결정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장단이 자리를 지켰다. LG그룹에서는 LG디스플레이 정호영 대표이사 사장이 유임됐다. 정 사장은 2008년부터 약 6년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활동하며, 그룹을 대표하는 재무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이 밖에 LG그룹은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등 대부분을 유임했다. GS그룹의 경우는 주력 계열사 CEO들을 모두 유임했다.

재계는 인사를 통한 재무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이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불려온 경기 침체가 재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대한 재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글로벌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인사에는 해외 시장 전략에도 능통한 사람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규복 현대자동차 프로세스혁신사업부장 겸 차세대ERP 혁신센터장(전무)을 현대글로벌비스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재무에 힘을 싣는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尹 대통령, 삼성전자에 수출의 탑 친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삼성전자 한중희 대표이사에게 전이백억불 수출의 탑을 친수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 환율 1200원대로... ‘피벗’ 신호에 시장 반색

美 파월 “기준금리 예상 정점 접근 경기 연착륙 달성 가능” 낙관론 펼쳐

‘킹달러’가 주춤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약 4개월 만에 1200원대로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전면 전환할 거란 ‘피벗(Pivot·방향전환)’ 신호에 금융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에 1200원대로 떨어지며 약 4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환율이 1300원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8월 5일(종가 1298.3원)이 마지막이다.

연준은 올 들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기준금리가 3.75~4.0%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매파(통화 긴축정책 선호) 본색을 드러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로 돌변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5%포인트(p)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며 “12월 FOMC에서 0.5%p의 금리인상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 연준이 기준금리의 예상 정점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명확한 금리인상 조절 신호를 보냈다.

또한 “경기 연착륙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며 경기 낙관론을 펼쳤다. 지난달 2일 FOMC 기자회견에서 “연착륙 여지가 좁아졌다”는 자신의 발언을 한 달도 안 돼 뒤집은 것이다.

연준의 피벗 가능성은 금융시장 상승세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가 2420~254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준의 피벗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2500선 돌파 시도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지난달 코스피는 10월 말과 비교해 178.92포인트(7.08%) 오른 2472.53에 마쳤다. 9월 말 저점(2134.77)과 비교하면 16% 넘게 반등한 모습으로 산타렐리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위험자산인 암호화폐시장

역시 상승세에도 올라선 모습이다.

FTX사태로 1만5000달러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1만7300달러까지 상승했다. 1주일 사이 약 7.5% 넘게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살아났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기간 10% 넘게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각종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 달러 정점론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간 고위급 회담이 비밀리에 수개월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상론이 고개를 들면서 유로 및 파운드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화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12월 0.5%p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 됐고 달리는 강제 모멘텀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삼성전자, 첫 여성 사장... 이영희 승진

## 이재용 회장 첫 인사

삼성전자가 글로벌 위기속 안정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정기 사장단 인사를 마무리했다. 주요 경영진을 대부분 그대로 둔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인재 중용하며 세대교체 노력도 지속했다. 처음으로 여성 사장을 선임하며 다양성도 높였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2023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5일 발표했다.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에 앞서 인사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주요 경영진은 모두 유임했다. DX부문장 한중희 부회장과 DS부문 경계현 사장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이어간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높여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경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인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사업지원 TF장을 맡아 삼성전자 계열사를 지휘하던 정현호 부회장도 이번 인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 컨트론타워 재건에 재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조직 개편이 발표된 후에야



김우준 DX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이영희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승진 인사에서도 ‘신상필벌’ 원칙을 분명히했다. 주요 사업 부문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둔 임원을 대상으로 과감한 승진을 단행,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세대교체에 나섰다.

우선 DX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2명을 사장으로 승진 조치하고 힘을 더했다. 네트워크사업부장 김우준 신임 사장과 글로벌마케팅실장 이영희 신임 사장이 주인공이다.

DS부문에서도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인 남석우 부사장과 반도체연구소장 송재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조치하며 힘을 실어줬다. 송재혁 신임 사장은 DS부문 CTO도 겸임하며 반도체 ‘초격차’를 주도할 핵심 인사로 낙점됐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정부-민노총, 강대강 대치...尹 “법·원칙” vs 민주노총 “노조 탄압”  
▲한-베트남 정상회담 시작...수교 30년 계기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사진 뉴시스

▲김대기 비서실장,尹대통령 특사로 이 달 중순 UAE 공식 방문  
▲‘여야 2+2’ 막판 협상...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여전히 팽팽



▲서훈 구속에 女 ‘측면 지원’하며 목소리 내는 이낙연 /사진 뉴시스  
▲주호영, ‘서훈 구속’ 비판한 文에 “제발 정신차리라”